

## 강진 토요 청자경매 전국서 발길

작년 첫 도입 200여점 팔려

강진청자 대중화 크게 기여

강진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토요 청자경매가 강진청자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강진군은 6일 “관요(官窯)인 청자박물관에서 실시한 ‘명품청자 토요경매’에서 200점에 가까운 작품이 팔렸다”고 밝혔다.

모두 27차례 열린 경매에 343점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192점이 낙찰돼 5천5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2천500여명의 청자 애호가들이 찾았다. 최고 낙찰가는 국보 68호인 청자상감문문대병을 제외한 작품으로 화목가마에서 구워졌으며 40여차례 호가(呼價)를 통해 422만원에 낙찰됐다.

박물관 측은 경매작품을 일주일 전에 군과 청자박물관, 전남도내 각 시군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관요서 생산된 작품만 경매에 내놓았으나 개인요작가들의 참여를 돋기 위해 출품을 원하는 도내 도예작가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대금과 해금 연주, 통기타 연주, 풀피리 공연,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청자 소품을 증정하는 즉석 퀴즈 등 불거리와 재미를 더한 점도 애호가들의 발길을 불러들였다. 특히 ‘토요일의 주역’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토요 경매는 두꺼운 청자 마니아층을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안금식 청자박물관장은 “토요경매로 강진청자의 인지도가 한층 높아지고 판매수입 증대 등 세수수입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특히 두꺼운 청자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강진청자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점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영어체험 캠프 떠나요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가 지원하는 영어체험 캠프에 참가하는 여수지역 어린이들이 6일 출발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어린이들은 오는 10일까지 4박5일 간 경북 경주시 사조리조트에서 열리는 영어체험캠프에서 노래 및 게임을 통한 영어 체험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 <GS칼텍스 제공>

## 완도군수협 끝내 문 닫는다

부실경영 탓 ... 금일 - 소안수협으로 나눠 12일 계약이전

전국에서 가장 큰 수협으로 손꼽혔던 완도군수협이 부실경영으로 설립 36년만에 문을 닫는다.

완도군수협은 오는 12일 금일수협과 소안수협으로 나뉘 계약이전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완도군수협의 부채는 5천700여억원, 자산은 4천700여억원(부동산)에 달한다.

완도군수협이 문을 닫게됨에 따라 어민조합원 1만250명의 출자금이 없

어지고 조합원과 임직원의 고용승계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번 계약이전에 따라 완도군수협 브랜드 소멸과 수산물의 가치하락, 상호금융 협포폐쇄로 인한 예탁인출, 정상채권 등반부실과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어민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완도군수협이 부실조합이 된데는 선거직 민선 조합장 선출에 따른 부

실경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신청 및 파산신청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지난 1972년 9월 문을 연 완도군수협은 수산물 계통출하 등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고, 브랜드 가치도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왔는데 문을 닫게 돼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황주홍 강진군수

## 순소득 1억 이상 200농가 육성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강진의 낙후와 가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7일 “지난 30~40년 동안 이루지 못하고 남의 일로만 여겼던 변화·성장·희망이라는 성공신화를 최근 3~4년의 짧은 기간에 썼다”면서 같은 포부를 밝혔다.

황 군수가 밝힌 올해 군정의 최대 역점과제는 군민들이 낙후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이다.

### 틈새 소득작목 확대

이의 일환으로 새해에는 농림축수산업이 경쟁력 있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되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순소득 1억원 이상 200농가 육성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위해 후원인제와 경영자문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결명자·참다래·친환경 웨빙채

소 등 틈새 소득작목을 확대 조성하고 과프리카·국화 등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정약용 기념관 건립 추진

황 군수는 ‘남도답사 1번지’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브랜드 창출도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황 군수는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 이학래(家) 복원, 보은산방 등 학술성지 순례벨트 완성, 청자특구 지정, 사내 간척지 위탁단지 조성, 하멜 체류지 복원사업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축제’라는 금지탑을 쌓은 강진청자문화제의 경우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축제로 손색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치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유치와 스포츠 마케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입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지하는 스포츠 마케팅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입 3년째인 강진 드림팀제는 전국 자체 가운데 최고 행정혁신의 모델로 자리잡았으며 이제 대민 서비스 강화에 한층 속도를 내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스포츠 마케팅 심혈

황 군수는 군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황 군수는 “강진의료원 조기 신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을 한해 조금 더 단결하고 친절한 자체로 더욱 열심히 일하면 사상 유례없는 커다란 성취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뜻한 기후와 맛깔스러운 음식에 남도의 인정을 더해 전국 단위

## 혁신도시 주민 재정착

### 나주시, 직업훈련 실시

#### 조경관리사반 30명 대상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 건설 예정지역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돋기 위한 직업전환 훈련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나주시는 자활기반 확충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산포면 복지회관에 훈련장을 마련, 우선 조경관리사반 30여명을 대상으로 5일부터 직업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훈련은 3개월간 시행되며 이수자는 혁신도시 조경사업 등 건설공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조경관리사 70여명을 배출할 계획이며 생업보조를

위해 훈련기간에는 일정 금액의 훈련수당과 생활보조금도 지급한다.

대상자는 혁신도시 예정지역 만 15세 이상 주민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액 보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시는 혁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건설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접차 청사관리 등 서비스업과 창업훈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생활안정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함평 ‘난 대제전’

#### 국무총리상 격상

함평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의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오는 3월말 열릴 ‘2009 대한민국 난·명품 대제전’의 훈격이 국무총리상으로 높아졌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 새 얼굴 /

## “농업인 실익사업 지원 주력”

### 이영기 농협 곡성지부장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영기(54)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장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회원농협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인 실익사업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으로는 부인 노명숙씨와 1남1녀. /곡성=김계중기자 kjkim@

**novita**

신뢰할 수 있는 10년 새들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대전문기업!

부실경영 탓 ... 금일 - 소안수협으로 나눠 12일 계약이전

전국에서 가장 큰 수협으로 손꼽혔던 완도군수협이 부실경영으로 설립 36년만에 문을 닫는다.

완도군수협은 오는 12일 금일수협과 소안수협으로 나뉘 계약이전기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완도군수협의 부채는 5천700여억원, 자산은 4천700여억원(부동산)에 달한다.

완도군수협이 문을 닫게됨에 따라 어민조합원 1만250명의 출자금이 없

어지고 조합원과 임직원의 고용승계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이번 계약이전에 따라 완도군수협 브랜드 소멸과 수산물의 가치하락, 상호금융 협포폐쇄로 인한 예탁인출, 정상채권 등반부실과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어민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완도군수협이 부실조합이 된데는 선거직 민선 조합장 선출에 따른 부

실경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신청 및 파산신청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지난 1972년 9월 문을 연 완도군수협은 수산물 계통출하 등을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고, 브랜드 가치도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왔는데 문을 닫게 돼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이오니아 1+2조 페스티벌!**

필립리 이온수기 위생용具 개선효과 확가기념  
로봇청소기 충전형시리즈

이온수기 구매시 로봇청소기 1+1 증정행사를 실시합니다.  
필립리 이온수로 청정도 향기고, 로봇청소기까지 업으로!

이제 필립리 1+1로 더 편리한 이온수기 이용하세요! 이온수기 이오니아 세면기 등을 높이 세워 배수로!

**IONIA**

1544-1219